

홀로서기 위한 낙농가 스스로 자구노력이 중요



김 상 지

농축임업신문 기자

현재 분유제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낙농업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낙농관련인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 나간다면 오히려 낙농산업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해 10월 낙농업계를 뒤흔들었던 고름우유과동과 더불어 분유재고량 급증 등 작금의 낙농현실을 계기로 돌아볼 때 우리 낙농업은 일대전환점에 와 있다.

이는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로 국내 생산 원유만으로 수요·공급을 예측하던 시대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낙농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총체적인 우수유수급조절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우왕좌왕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농업계의 이러한 안일한 사고방식은 급기야 원유 잉여, 분유재고량 급증등을 유발시켜 축산업중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각광받던 낙농업이 하루 아침에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30여년의 짧은 역사를 지닌 우리 낙농업은 그동안 해를 거듭하면서 양적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2만여호에 불과한 낙농가들이 국민 1인당 연간 우유소비량을 50kg대까지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이같은 비약적인 발전은 한편으로 온실속의 화초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아래 성장해 왔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개방화시대를 맞은 낙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홀로서기 위해서는 낙농가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안정적 우유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가장 시급한 과제가 우수유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우수유수급조절 문제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이전부터 대비책 마련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낙농진흥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되므로써 수급조정기구 부재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별·유업체별로 우유수급 사정이 다소 차이가 있고 집유조합에 납유하는 농가나 유업체에 납유하는 농가가 느끼는 차이는 있을 망정 국내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기구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유업체들은 값싼 모조분유를 수입해 유제품 원료로 모조리 대체함으로써 원유체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우유수급 조절기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낙농업을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특정지역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낙농업을 살린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낙농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유를 생산해야한다는 낙농가들의 의지 역시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대부분의 낙농가들이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나 소비자단체들의 감시 또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선진낙농국 수준의 우수한 우유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은 언제라도 우리 우유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낙농가들은 주지해야 한다. 현재 낙농업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유재고량 급증의 한 원인이 우유의 안정성 시비에서 야기됐다는 것을 정부와

낙농가들은 재삼 상기, 위생기준 강화 목장의 위생적 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는 우유를 생산해야 된다.

세째로 낙농가들의 경영합리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정비 또한 낙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

조삼모사의 단기적인 줄속 정책보다는 세계 금융지원, 조사료 생산지원 대책, 고가의 기자재에 대한 설치지원 대책, 사양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방안 등 장기적인 지원시책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또 한가지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이다. 지금까지는 소비홍보가 유업체의 몫으로만 간주되므로써 지난해 같은 이의없는 파동시 체계적인 대책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 결과 아직도 소비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낙농가 스스로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소비촉진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낙농자조금제도를 정착시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낙농가들이 단합된 힘을 발휘해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교섭을 통한 낙농발전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분유체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낙농업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낙농관련인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 나간다면 오히려 낙농산업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완전한 자연식품 우유를 마시자

